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안경자 의원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이행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안경자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 혁신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께서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시간으로 챙긴다는 각오로 디지털 공약실을 구축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을 시스템으로 실시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대전을 기업이 성장하고, 인재가 찾아오고,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 꿈을 펼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도전과 창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은 3년간 시장께서 수행할 공약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가감 없이 점검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5대 핵심분야로 64개의 신규사업과 23개의 지속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55조 6,437억 원이며 국비 18조 5,173억 원, 시비 4조 376억 원, 구비 683억 원, 기타 민자유치 33조 205억 원에 이릅니다.

당선 당시 약속한 5대 공약의 주요사업은 크게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이었습니다.

또한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 지하화 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인구는 153만 명에서 14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 소비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근간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다양한 기술 개발부터 최근 누리호 발사 기술까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제2대덕연구단지와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 500만 평에 조성될 산업단지는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써 대전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초석을 닦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께서는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된 브리핑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약사항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신속하게 조성해서 첨단산업 기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도로, 전력, 통신,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국가와 대전시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직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 공약사업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재원 조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최근 폭스바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요구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재생발전 기반시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 1.9%인 상황에서 재생발전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고민을 해결하고 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기업유치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심야관광과 융합하여 온 국민이 찾고 즐기는 관광 1번지를 만들고 365일 대전을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과 같은 대전의 랜드마크로서 대전의 중심인 중촌동 인근에 제2시립미술관 1,200억, 음악전용공연장 2,500억을 디자인공모로 진행, 건축가들의 무한한 발상이 반영된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사업비는 합쳐서 3,700억 원에 이르며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넘어야 할 큰 산인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계획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인 비용 대비 편익값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심의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대전의 중심에 랜드마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미술관과 대전예술의 전당이 존재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준공과 3·4·5호선 동시 추진, 교통융합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당초 6,599억 원에서 최종 1조 4,091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계획에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비 23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15년 가까이 지난했던 트램사업을 내년 착공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며 열악한 대전의 교통망 흐름에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 내의 통행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이동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3·4·5호선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건설,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확대 및 일부 지하화 사업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3·4·5호선 사업은 대전 내 교통소외지역 문제의 해결과 교통혼잡 완화와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을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통팔달 교통체계의 고도화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전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지선, 또한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등이 사실상 제1외곽순환도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통량이 증가하며 순환기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에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축을 위한 교통망으로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며 광역생활권 조성, 도시 간 물류비용 절감, 이동시간 단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대전도심구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을 남북으로 지나면서 산업단지 예정지를 동·서로 단절시켜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하화는 꼭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사실상 시내 권역의 간선 교통망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간 확장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의 사업들은 대전의 경쟁력 확보와 대전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분산으로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사업은 대통령께서도 내세우신 공약사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효과성, 추진성에 대한 명분 확보가 필요하며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추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해보니 시장님 임기 중에는 3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 3·4·5호선 동시 추진을 위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지부진했던 2호선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3·4·5호선 사업도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약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약 55조에 달하는 공약 재정 중 시장님 임기 내 재정 투여 계획은 약 13조 원 수준으로, 42조 원은 임기 후 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후 재정 42조 원 가운데 31조 원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계획인데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이 없고 자칫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전시 1년 예산은 일반회계는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는 1조 844억 원으로 약 6조 5천억 원 수준임을 생각했을 때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의 시비만 따져도 임기 내 1조 3천억 원의 시비는 대전시민 1인당 8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조의 시비로 따졌을 경우 시민 1인당 27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약사업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견주어 39조 7천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8.2%나 감소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편성을 보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대전시는 국비 신청액 2조 5,180억 원 중 2조 1,8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 원대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여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파악한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세수는 5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9%나 줄어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가 20% 안팎 감소하고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세의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축소로 이어집니다.
대전시도 6월 말 기준 수입은 1조 128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709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공약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해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공약사업 및 민선 8기 100대 과제 우선 투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을 위한 기존 사업의 재정 삭감의 기조 속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기존 우수한 정책들을 보전하면서도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나 4년 임기라는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내에 87개 공약사업을 모두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공약사업은 없으신지, 있다면 과감한 철회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의지 및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을 일류도시로 만든다는 시장님의 진심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업 중 실현가능성이 작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상황, 향후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교통환경 개선, 문화예술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안경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추진현황과 입주수요, 진행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 조성의 핵심 사업인 국가산단 조성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올해 4월 LH와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내년 5월 예비타당성 신청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수요는 229%, 667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입주의향서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484개 기업과 반도체 특화단지 266개 기업이 입주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에는 앵커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상호 협약에 따라 제3자 공개가 곤란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전 및 신·증설 기업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관련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30년까지 20개소, 535만 평에 대해서 총사업비 11조 1천억을 투자해서 신규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산단 5개소, 101만 평과 추진계획 산단 15개소, 434만 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 단독 또는 민관합동개발 그리고 공영개발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은 민간이 개발하도록 공모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개발 규제는 법률의 허용 범위 내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의 투자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대전시가, 그리고 국비와 함께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국가산단 160만 평에 RE100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산단 조성 시에도 태양광·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적극 유치하고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더욱 확대해서 청정에너지를 도입해서 용수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비용 지원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단독 또는 민관합동 방식의 경우 사업성 부족 시 기반시설비용의 일부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 도시공사, LH가 참여하여 공사채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 사업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시립미술관 및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사업은 대전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중촌근린공원에 집적시켜 제2의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 신구 도심을 잇고 지역 간, 세대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허브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가동률은 무대점검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100%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클래식 전용공연 중심의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으로 타 분야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문화격차로 소외받았던 원도심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은 협소한 전시공간, 높은 대관 경쟁률 등으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조차도 작품전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시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많은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현 시립미술관의 두 배 규모의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난 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및 건축계획용역을 위한 예산 12억 원을 각각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선 디자인 후 설계방식을 적용해서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유럽분관과 같은 명품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조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민선 8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4·5호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요증가와 도심 공간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고민한 바 도시철도 중심의 대전시의 교통망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3·4·5호선 공약 노선을 바탕으로 교통수요 및 경제성 등을 검토 중으로 교통수요 및 도시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상 노선을 발굴하여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오는 2024년까지 3·4·5호선의 최적의 노선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에 단계적으로 이행해서 최우선 노선을 중심으로 후속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는 도심 통과로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확장 규모는 지하화 3.2㎞를 포함하여 총 18.6㎞입니다.

지하화 구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최우선적으로 해낼 생각입니다.
전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은 타당성 확보 및 지하화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우선 회덕JCT~유성IC까지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지하화를 포함한 유성IC~서대전JCT 구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성을 확보하여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대전·충남·충북·세종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도 계룡~유성, 세동~공주 7.5㎞를 이용한 연장 76.8㎞에 대하여 현재 타당성 분석 중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이 최우선으로 금년 10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재정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약자 복지, 미래 투자 준비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 등 주요사업이 정부의 중점 분야 사업과 적합성을 갖도록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타당성,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축소·일몰하는 등 세출구조조정도 함께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자 및 운영여건에 맞춰서 공약 등 주요사업의 최우선 투자 부문과 우선투자 순위 그리고 사업별 추진시기, 투자방식 등을 조정해서 대전시의 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정에 무리하지 않도록 재정의 배분적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은 단기 1년에서 10년까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도로공사, 도시공사, 민간 투자유치 또 산단 투자 등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서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